



연중 제33주일(11월 17일)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날,
무화과나무의 교훈, 깨어 있어라(마르13, 24-32)



최후의 심판

이 작품은 시스틴 경당의 제단 변화로 장식되어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어 최후의 심판을 내리는 장면이 표현되었다. 최후의 심판 날이 되면 이 세상에 석여 있는 선과 악, 선인과 악인이 분명하게 구별된다. 선한 사람은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고, 악한 사람들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영원한 고통 속에 들게 된다.

작가 미켈란젤로 | 1536~1541년, 높이 약 13미터, 바티칸 시스티나 소성당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441번 “주의 나라 임하면”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저희와 함께하시어 당신의 현존을 깨닫게 하소서.
- 주님!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아듣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마르코 복음 13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24 “그 무렵 큰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25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26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27 그때에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28 너희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29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30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31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32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나는 '사람의 아들이' 오는 때를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습니까?(마르코 13,24-27)

나는 삶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까?(마르코 13,28-29)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모세는 하느님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탈출33, 18)라고 청했습니다. 모세의 말을 들으신 하느님께서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모세는 하느님이 지나가고 난 뒤에 하느님의 등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세상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당신의 손길이 닿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혼란을 겪는 이유는 매번 하느님의 뒷모습을 보았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의 아들이 오는 때를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오는 때,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한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빛을 잃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 자체이신 하느님께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세처럼 하느님의 뒷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느님의 신비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날을 희망하며, 예수님의 말씀처럼 늘 깨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써보기

[마르코 13,26,31]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함께하기

| 진행자 | : 우리 소공동체가 희년을 준비하며 실천할 사항들을 정해 봅시다.

【망자와 그 가족들에게 전하는 위로】 교황님 11월 기도 지향에 따라

공동체와 함께

- ① 소중한 이를 잃어 힘들어하는 이웃이 있다면, 찾아가 함께하며 슬픔을 나누고 위로하기
- ② 전쟁으로 세상을 떠난 이들, 특히 아이들을 위하여 미사 봉헌하고 함께 기도하기

내 삶 속에서

- ① 먼저 떠나간 내 가족, 이웃들을 기도 중에 기억하는 시간 가지기
- ② 기억되지 못하는 자, ‘무연고 사망자’들을 위해 기도하기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